

# 고흥군 귀농·어 창업·주택자금 전국 최대 규모 216억원 확정

창업 3억·주택구입 7500만원  
을 122명 선정 저리 융자  
1~5년차 이자 납부액 50% 지원

고흥군이 올해 도시민 정착을 위한 귀농과 주택 자금 지원을 전국 최대 규모로 확대했다. 5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도시민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2021년 귀농·어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지원 사업에 총 122명을 선정해 216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 배정 귀농자금 470억원 중 69억원(14.7%), 귀어자금 354억원 중 147억원(41.5%)을 차지하면서 시·군 가운데 최대 금액을 확보한 것으로 기록됐다. 3월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연 2%의 대출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고흥군은 예비 귀농 귀어인들에게 창업계획서

작성, 영농기술, 유통, 융자상환 컨설팅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초기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귀농·어 창업자금 지원대상자의 역귀농 방지 및 이자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1~5년 차에 이자 납부액의 50%를 지원해 귀농·어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쉽고 든든한 가사와 중독적인 멜로디가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하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곡성군이 특산물인 멜론 육성과 홍보를 위해 CM송을 제작,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 ‘빛이 중한디~’ 곡성 멜론 CM송으로 소비자 유혹

곡성군 제작 라디오 등 홍보 활용

곡성군이 멜론 노래(CM송)를 제작해 지난 1일 선보였다. 5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역특산물로 고품질 멜론을 육성하고 멜론 마을을 조성하는 등 6차 산업화에도 힘을 쓰고 있다. 특히 6차 산업화 사업 중 하나로 이번에는 멜론 마을 CM송을 제작, 지난 1일부터 주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보내고 있다. CM송은 약 7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곡성’의 대사 ‘빛이 중한디~’로 시작한다. 이어 쉽고 듣기 편한 가사와 중독적인 멜로디가 반복되며 듣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노래를 흥얼거

리며 곡성 멜론을 기억하게 제작됐다. 곡성군 공무원 중 일부는 CM송이 마음에 든다면서 자신의 휴대폰 통화연결음으로 설정했다. 곡성군은 오는 5월 멜론 출하 시즌을 앞두고 CM송이 곡성 멜론 홍보와 멜론 관련 체험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곡성멜론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단 담당자는 “멜론마을 CM송을 적극 활용해 곡성 멜론에 대한 소비자와 관광객들의 인지도를 높일 것”이라며 “지역 멜론 생산 농가소득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 여수 국동항에 전국 첫 건어물 청정위판장 들어선다

2023년까지 국비 등 60억원 투입

여수시에 ‘전국 첫 건어물 청정 위판장’이 들어선다. 5일 여수시에 따르면 2023년까지 국비 24억원 등 총 60억원을 들여 위판단계에서부터 청정위생 시스템을 도입한 건어물 청정위판장을 세우 수산업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건어물 청정위판장 건립은 시가 해양수산부 주관 ‘2021년 청정 위판장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가시화됐다.

여수수협은 간접보조사업자로 국비 24억원, 시비 18억원, 자부담 18억원 등 총 60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국동항 수협위판장 옆 대지에 건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청정위판장은 연면적 3979.5㎡, 지상 3층 규모로 하역장, 선별실, 경매장, 포장실, 출하장을 갖추게 된다. 습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건어물을 위해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폐쇄형으로 설계해 각종 위해로부터 안전한 건어물 청정위판장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청정위생시스템을 도입해 입고에서부터 경

매·보관·배송의 모든 단계를 위생적으로 취급·관리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시설이 완공되면 청정한 건어물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판매량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활어 및 선어 위판도 청정위판장 시스템 도입을 위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수협 위판장은 연면적 7830㎡ 규모로 연간 4만3000t의 수산물이 위판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곡성 세계장미축제 올해도 취소... 영상으로 즐기세요

코로나19 확산 여파 취소 결정

버스킹 공연 등 유튜브 동영상 제공

곡성군이 올해 5월 하순 개최할 예정이었던 곡성 세계장미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곡성세계장미축제는 행정안전부 2017년 결산 기준 전국 최고의 축제제로 지역 관광사업의 핵심이다. 해마다 5월이면 4만㎡ 장미공원에 피어난 1004종의 장미 수천만 송이가 관광객을 불러 모았지만, 지난해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다. 인구 3만명이 못 되는 작은 기초지자체에서 축제를 개최하지 못한 여파는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곡성군은 이에 올해 장미축제 개최 여부를 고심했지만, 전국 코로나19 확산세를 의식해 최종적으로 취소를 결단했다. 축제는 취소했지만, 곡성군은 코로나19 사태 종료 이후를 위해 장미축제 비대면 홍보에 나섰다. 곡성군은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홍보 동영상 제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곡성 농특산물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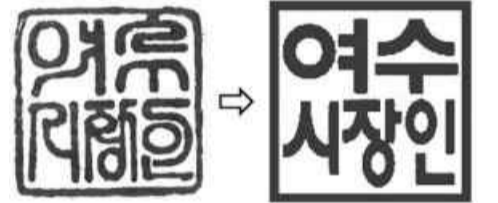
오는 5월 개최 예정이었던 곡성군 대표 축제인 ‘세계장미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결국 취소됐다. 사진은 곡성군 1004 장미공원 전경. <곡성군 제공>

시간 온라인 판매 ▲방송사 연계 온라인 거리두기 버스킹 공연 ▲곡성세계장미 ‘유퀴즈’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2년째 축제를 개최하지 못

해 아쉬움이 크지만, 비대면 프로그램으로도 우리 군과 아름다운 장미를 만나서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 여수시 직인, 20여년 만에 ‘여수전용체’로 교체

여수시는 20여 년간 사용해온 여수시장 직인을 비롯해 공인 462점을 기존 ‘한글전서체’에서 ‘여수전용체’로 교체한다고 5일 밝혔다. 여수전용체는 지난 1999년 3여통합을 기념해 개발한 것으로 통할 여수의 상징성을 살리고 직인의 의미를 뜻깊게 만들 수 있어 20여년 만에 교체를 단행했다. 직인 교체 대상에는 여수시장 직인뿐만 아니라 읍면직인, 민원사무전용인, 회계관인 등 기존에 전서체로 사용되어 왔던 공인 462점도 포함됐다.



시는 기존 공인은 기록관으로 이관해 행정 박물관 영구 보존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세얼굴

## “여수·광양항 맞춤형 개발에 주력”

조신희 여수해양수산청장

“지역 특성에 맞는 여항 개발을 통해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조신희 제39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 5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조 신희 청장은 “광양항은 국내 최대 산업클러스터 항만으로, 여수항은 해양관광·해상서비스 거점항만으로 특화된 항만 발전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 김제 출생인 조 청장은 김제여고와 한양



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책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해양수산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외교부 주중 한국대사관 참사관·주 피지 한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해수산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